

CNSA (국가형제회 영보단)

뉴스와 논평

교회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놓으면 그들은 더 편할 것입니다.



21 세기를 위한 재속 프란체스칸
레스터 바흐, OFM Cap - 2016-2017 년 겨울

+ 기억하십시오 +

+ **베넷 폰크 OFM - 2016 년 12 월 23 일에 사망함**

세기 (2000 년)가 바뀔 즈음에, 베넷이 우리와 함께 봉사할 때 CNSA 는 베넷으로부터 많은 나눔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제 형제회에 봉사하면서 얻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한 경험을 나눴고, 단위 형제회와 국가 형제회의 영보단의 일원으로 봉사 했습니다. CNSA 에서의 작업에서 그는 현명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양성 책 : *그리스도의 중만 함으로 완전히 성숙됨*은 훌륭한 글입니다.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많은 기술을 우리와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재능과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한 헌신을 기념합니다. 베넷은 그의 통찰력과 헌신이 잘 알려진 수사였습니다. 성삼위 하느님, 베넷을 우리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 설리반 OFM - 또한 2016 년 12 월에 사망함**

존은 또한 2000 년 신세기에 CNSA 의 일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문헌를 알고 성심 OFM 관구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관구 영적 보조자로서 그들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의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재속 프란치스코회 문서를 신중히 여기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봉사는 모두에게 관심 있는 형제로서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성삼위 하느님, 우리 형제 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 우리는 마찬가지로 **재속 프란치스칸들**의 삶과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들(과 우리)이 그들의 삶에 대해 삼위일체께 올리는 찬양의 합창에 베넷과 요한과 합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사랑이 필요한 삶의 사역에서 현재의 프란치스칸 생활을 받아들입니다.

이 인용에 대해 "Poverello" 가족에 감사합니다. 디트로이트, 미시간의 성 보난벤투어 형제회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물은 사용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사물이 사랑받고
사람들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모든 상황에 다 적합하지 않을지라도 재속프란치스코회 (OFS) 회칙 제 11 조 및 회헌 (GC) 제 15.3 조를 숙고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OFS 회칙 - 제 11 조: 성부를 신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을 관심 있게 또 좋게 보셨지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생활을 택하셨다. 이와 같이 회원은 물질적 욕구를 줄임으로써 현세의 재물로부터 벗어나고 사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며, 복음에 따라 자신은 하느님 자녀들을 위해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은 "행복 선언"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순례자나 나그네"와 같이, 소유욕과 지배욕 및 그러한 모든 경향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GC - 제 15.3 조: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영적 ▪ 물질 재물을 회원,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회원과 나누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며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사용하고, 받은 재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따라서 회원은 재물을 인간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보다 높게 보고 인간성의 착취를 허용하는 이념이나 실천 등 각종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프란치스칸 영성으로 저명한 작은형제회의 빌 숏 수사님이 새로운 사목을 시작하십니다. 로마 St Isidore 에 위치한 프란치스칸 연구의 국제 기관인 성 보나벤투라 회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빌 수사님, 축하드립니다.
계속 연락주세요.



새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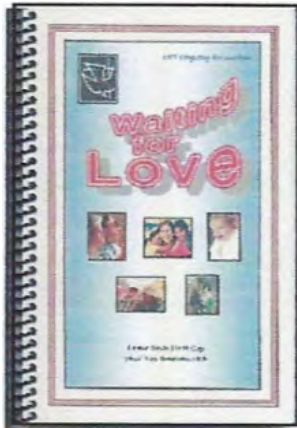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칸 비날 반 배섬과 카푸친 작은형제회의 레스터 바흐 신부님 공동 저작의 영속적 양성책

‘사랑을 기다리며’이 발행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생각과 교황 프란치스코, 베네딕도 16 세, 헨리 누웬, 진 베니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프란치스칸적 시각을 가진 평범한 사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각 15 장은 구름 토의와 개인 묵상을 돕기 위한 도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성당, 가족, 공동체 토의, 공적 정치적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토의의 중심이 되려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강한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알리기 위해 재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미국엔 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정치적 성향, 고유한 이해, 특정한 주제에 관한 교육과 생각이 존재합니다.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현실적인 대화와 해결점을 거부하지 않는 의사소통은 시간이 걸리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을 기다리며 38-42 쪽).

작은형제회의 베넷 폰크 신부님의 부고를 접하고 재속 프란치스칸 영적보조자 지침서의 고인의 글(53 쪽)을 생각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칸 모임에서의 영성체에 관한 글인데, 영성체가 모든 모임의 중요한 요소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 좋은 독서입니다. 아래 글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2001 년 11 월 7 일) 재속 프란치스칸 회헌 14 조 2 항에 ‘미사성제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미사성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 또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킨다. 그러므로 미사성제는 형제회 생활의 중심이다. 회원은 그리스도 생애의 모든 신비를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미사성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여,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헌 53 조 2 항에는 ‘형제회는 형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프란치스칸 가족의 신분을 확립시켜 주는 분위기 안에서 미사성제를 거행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서도 정기적으로 모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헌 42 조에는 서약은 미사 때 이루어진다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재속 프란치스칸 회칙 24 조에는 “평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형제회의 정기적인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가지며, ... 또한 모든 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며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칙 52 조 1 항은 계속해서 “형제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합을 통하여 회원에게 만남과 유대의 개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며, 이어서 회칙 44 조 2 항은 “형제회는 성소를 완성시키고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새 종신서약자와 유기서약자의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가 있다: 가)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며’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한다. 나) 신앙의 빛을 받고 교도권 문헌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적절한 입장을 취한다. 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및 다른 프란치스칸의 글을 연구하며 모든 회원들의 프란치스칸 성소 실현과 심화를 돕는다.”라고 서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사성제는 재속 프란치스칸 생활양식과 정신의 중심이고 정기적 형제회 모임이나 서약식과 같은 특별한 모임의 한 부분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일반 모임과 자주 모이는 모임의 필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칙과 회헌에 의하면 목적은 영성체가 아닌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삶의 갱신과 믿음의 나눔을 통한 사도적, 교회적, 프란치스칸적인 재속 프란치스칸 삶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평화

